

# 수제맥주 · 위스키 '주목'

### 군산맥아 사용 수제맥주축제로 '김창수 위스키' 출시

오는 16일부터 개최되는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에서 국내 위스키 역사 최초로 군산맥아로 만든 위스키를 선보이며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위스키의 원료가 수입산 몰트(맥아)를 사용해 한국산 위스키라고 하기엔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이번 군산맥아를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며 진정한 100% 한국 위스키 시대를 열었다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는 올 첫 회

를 맞이하는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축하하는 뜻에서 축제 3일동안 매일 두 병씩 관람객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고 축제 마지막인 18일에는 김창수씨가 직접 현장에서 군산맥아 싱글몰트 위스키 시음판매행사를 갖는다.

군산맥아를 사용한 김창수 위스키 출시와 축제 기간중 경품제공이 알려지면서, 위스키 매니아들의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 참여방법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지난 4월 출시된 김창수 위스키는 딱 336병만 출시돼 시장에 나오자마자 전량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고, 리셀가가 100만원이 넘게 거래되며 '오픈런'의 진풍경이 벌어지는 등 국내 위스키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산은 맥주에 이어 위스키 양조까지 한국 술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시가 일상 속 생활문화 향유를 위해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를 본격 운영해 100여명의 지역연주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 '1시민 1악기' 본격운영

### 익산시, 26일까지 20팀 모집 팀당 익산시민 5인 이상 구성

익산시가 일상 속 생활문화 향유를 위해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를 본격 운영해 100여명의 지역연주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시는 '1시민 1악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강팀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20팀이며 악기별로 익산시민 5인 이상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시민 누구나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가능 악기는 가야금, 거문고, 기타, 대금, 만돌린, 미나하프, 바이올린, 비올라, 색소폰, 아쟁, 오카리나, 우쿨렐레, 장구, 첼로, 킨바, 클라리넷, 태평소, 트럼펫, 트럼폰, 플루트, 피아노, 하모니카, 해금, 호른 총 24종이다

악기는 학습자가 구비해야 하며, 수강 장소는 원광대 60주년 기념관 10

팀, 익산문화원 4팀, 희망장소 6팀이다. 강사 매칭은 지난 달 29일부터 9월 7일까지 강사 모집을 통해 확보된 강사들 중 심사를 통해 순위를 정하여 매칭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익산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협약기관(익산문화원, 익산문화관광재단, 익산생활문화예술동호회, 한국예총익산지부, 익산민예총)으로 방문접수 혹은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로 방문접수와 우편접수이다.

'1시민 1악기 프로젝트'에 선정된 팀에게 10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강사를 지원해 무료로 일주일에 2번, 3시간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연말에는 그동안 갖고 묶은 악기를 뽐내는 악기발표회를 진행해 우수 수강생에게는 익산시장 표창 및 악기 강사비 1회를 추가 지원하는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이자지원

### 대출금액 최대 2% 2년간 지원

익산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본격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에 승풍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관내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대출한도 5천만원 이하로 최대 2%까지, 최대 2년간(2022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분기별로 대출이자를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정책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

단 시행) 대출을 실행한 익산에 사업장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다.

앞서 시는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익산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익산센터, 소상공인연합회, 시중 7개 은행 등 10개 기관(순서 변경함)과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익산지역 소상공인은 약 2,000여명, 대출 원금은 약 970여억원으로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가을철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접수에 나선다

접수장소는 소상공인(활보 임시청사), 정책자금 직접 대출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익산센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가능하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취급하며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어부는 익산시청 소상공인과에 유선으로 간이 확인할 수 있으며(☎ 063-859-7533), 신청은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통장 및 신분증 등을 구비해 10개 기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 금강미래체험관, 찾아가는 분리배출 시민캠페인 시작

군산 금강미래체험관(이하 체험관)은 14일 군산시니어클럽을 시작으로 '지구를 살리는 심폐소생술 분리배출' 찾아가는 분리배출 시민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5대 기후위기 주제 중 하나인 자원순환을 주제로 하고 있다.

체험관은 이번 시민캠페인을 통해 어린이·학생 위주의 기후위기 교육을 중·장년,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체험관은 '음쓰제로', '매1매1 기후행동' 등 다양한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주로 SNS로 진행한 기존의 캠페인과 달리 이번에는 찾아가는 대면교육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기관에 체험관 프로그램 강사가 출강해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하는 방식이다.

교육 내용은 자원순환 개념, 분리배출 방법, 군산의 쓰레기 처리 과정을 소개하는 한시간 정도의 교육 후 업사이클링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것으

로 총 소요 시간은 한 시간 반 정도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단체에서는 15명에서 30명까지의 인원을 한 반으로 구성해 체험관(063-454-5683)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복지관 등 강사가 출강해 강의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참여자들은 병뚜껑 페트병 등 간단한 재료만 준비하면 된다.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패널을 사용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 군산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공청회

군산시가 시민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14일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 공청회를 중앙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지역구 시·도의원, 군산시민 등이 참석했으며 군산대학교 송석기(건축공학)교수 등 전문가 3인의 토론을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중앙동 2구역은 군산의 원도심으로 지난 1990년대 말까지 의료 및 가구 제품 등을 판매하며 군산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던 곳이었다.

시는 이 지역을 기존 공공에서 추진했던 획일적인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가와 지역 상인들과 협업체 상권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화된 창업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및 예술공간을 조성 할 계획이다.

특히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청년인재와 지역상이 연결될 수 있도록 로컬 네트워크를 구축해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와 도시재생 공모방안에 맞춰 중앙동 2구역만의 스토리텔링 및 로컬브랜드 개발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계획을 보완해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다자녀가족 '아빠랑 행복캠프' 실시

익산시가 다둥이 아빠들이 함께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로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에서 '아빠랑 행복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다자녀 가족에게 힐링 시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아빠의 육아 역할 확대의 기회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아빠는 요리사, 가족 티셔츠 만들기, 명랑운동회, 별밤 마을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익산에 거주하는 5세 ~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2자녀 이상 둔 다자녀가정 15가족을 모집한다. 신청은 15일 10시부터 18일 17시까지 홈페이지 통합예약 사이트에서 선착순 접수 받는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문인협회, 지구환경 살리기 시화전 개최

익산시는 쓰레기와 폐기물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 등 지구와 환경을 다시 살리자는 '함께살림' 주제로 시화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문인협회 익산지부(지부장 정진희)에서 주관하는 이 시화전은 제54회 익산예술제 행사의 하나로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습리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시화전에는 익산문인협회 강희정 외 54명 회원, 익산 관내 중고등학교 30여명, 경주문인협회 회원 8명이 참여하여 시화 100점이 전시된다.

특히 지구 환경을 주제로 한 문학꿈나무인 중·고등학생들의 작품 전시로 학생들과 환경 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계기 마련과 자매도시인 경주문인협회와 문화예술 교류전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진희 지부장은 "이번 시화전은 우리가 살아야 할 지구의 환경을 살리자는 주제로 열리는 만큼 시민들의 마음이 닿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